

##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5

Good evening.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welcome all of the journalists who have come to Seoul for the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15.

It is a great pleasure for me to celebrate the opening of this event, which is one of the largest gatherings of journalists from around the world. I would like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to Mr. 박종률, President of the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and the Association's 10,000 members for their dedication in hosting this meaningful event and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make a congratulatory speech every year.

In Korea, there is an old saying, "Ten years can change even the rivers and the mountains." However, there is a dream that has not changed, even though 70 years have passed. It i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or the past several decades, our people have lived through division, enmity, threat, and unrest. Under constantly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s, the security dilemma of the Korean Peninsula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severe. The similar nature between the two Koreas is becoming weaker, and the difference is growing wider.

There are still around 6,700 people from separated families living in the South longing to see their families in the North. It is heartbreaking because most of them are getting old and do

not have much time left. Unification is a mission for our nation, our history, and our era.

It will determine the peace and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e should strive to engage in concrete dialogue, build trust, and improve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we should strive to expand the consensus and suppor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is why the world's attention is being focused on the World Journalist Conference 2015, which is being held under the them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Division of Korea: Thinking about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 hope that the discussions among the participating journalists over the next 7 days will help us draw a bigger picture for unification and find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a concrete vision.

I also hope that the World Journalist Conference 2015 can serve as a platform for productive discussions on the role of the media as well. This conference is all the more meaningful [because it has invited journalists from 11 different countries which have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I hope that this conference can help us build a global consensus on the need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faced because of a divided Korean Peninsula and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prosperous future for all the people of the global community.

Before becoming the Mayor of Seoul, I spent around 3 months traveling Germany. At that time, I had a chance to meet with some prominent figures in Germany and interview them. I wrote a book afterwards, called “An Interview with the German Society.”

I remember the same piece of advice that they gave to me. It was “The Berlin Wall did not fall in one day.” Their advice was that the dream of unification will come true only when discussions on and preparations for unification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That is how Germany made their dream of unification come true. The feder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private sector all came together to pursue exchanges between the West and the East.

The Berlin Wall fell, and the West and the East became one. In fact, the visit of the Governor of Saarland from West Germany to East Germany in 1985 initiated the sisterhood relations among 62 different cities, and led to cooperation on transportation, housing, environment, culture, arts, sports, and more. These exchanges and cooperation accumulated, and in 4 years, unification was achiev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was critical in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should notice the importance of pursuing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cities in the North. For that, it

is important to bring the North back to the dialogue table and set a starting point for exchanges and cooperation.

It is important to lift the May 24th Measures and respect and implement the past agreements. It is important to further develop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encourage South Korean companies to participate in SOC development an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North. This could pave way for new exchanges and new opportunities for the two Koreas.

This year, we are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from Japan an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Since 2011, when I first took office as Mayor of Seoul, I have been suggesting the culture and sports exchanges between Seoul and Pyeongyang. For example, performance exchanges between the Seoul Philharmonic Orchestra and the Pyeongyang Philharmonic Orchestra.

Also, the resuming of soccer matches between the two Koreas. Furthermore, joint historical research, urban planning,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model, and more.

Today, I re-emphasize the importance of support and opportunities from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pursue inter-Korean exchanges on the local government level.

If the citizens of Seoul and Pyeongyang can set aside their differences, understand each other, and build trust, the opportunity for peace and unification will come to us. Let us all, including everyone here today, work together towards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beautiful cherry blossom flowers are in full bloom everywhere you go in Seoul. It seems like they are welcoming you here. I highly recommend you visit Seoul City Wall, Nam Mountain, Han River, Dongdaemun Design Plaza, and more. I hope you have a memorable visit experiencing the unique harmony of tradition and modernity in Seoul.

Thank you very much.

## 2015 세계기자대회 환영만찬

세계 각국에서 와주신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박원순입니다.  
세계 언론인들의 축제, 「2015 세계기자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해, 온 마음으로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런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세계기자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에 늘  
초청해주시는 **박중률** 한국기자협회회장을 비롯한 1만 회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강산이 7번이나 변하는 동안에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의 꿈입니다.

그 오랜 시간동안 우리 민족은 분열과 반목,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와 불안성은 더 커졌고,  
남북 간 동질성은 약화되어 이질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남한에만 6,700명이 넘는 이산가족들이 북의 가족과 이별의 아픔을 겪고 계시고,  
그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고령화되어 흐르는 시간이 한없이 아쉽기만 한 상황입니다.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위한 민족적·역사적·시대적 소명입니다.  
구체적인 대화와 신뢰 형성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의 공감과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분단 70년, 한반도의 통일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계기자대회에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기자들이 함께 하는 6박 7일간의 토론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로 가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 비전과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며,  
미디어의 역할을 고민하는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세계기자대회에는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11개국의 기자들을 특별  
초청해 의미를 더한다고 들었는데요, ※ 6.25한국전쟁 참전국 : 21개국(전투부대 파견 16개국, 의료파견 5개국)  
이번 기자대회를 계기로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아픔을 넘어  
지구촌공동체의 미래 번영의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공감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장이 되기 전에 약 3개월에 걸쳐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의 영향력 있는 분들과 만나 인터뷰를 해서  
『독일사회를 인터뷰하다』는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제가 만났던 분들께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온 저에게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를린 장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는 말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생활화되고, 통일에 대한 준비가 일상화될 때 통일의 꿈은 현실이 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독일은 그 원칙을 실천한 국가였습니다.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민간도 폭넓게 교류한 결과, 베를린 장벽은 동서의 이념을 무너뜨리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1985년 서독 자를란트의 주지사의 동독 방문은 62개 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성사되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 간 교통, 주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에서부터 체육, 예술, 문화행사에 이르기까지 교류하고 협력했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 4년 만에 마침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 통일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유념해볼 때, 우리 지방정부도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당당한 한 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 교류의 시발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한의 지난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성공단 활성화는 물론 2단계 3단계로 확대해 나가 북한의 SOC 건설과 광물자원개발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해서 새로운 교류의 물꼬를 트고, 꼭 막힌 우리 경제의 활로도 뚫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70주년, 분단7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저는 2011년 취임 이후부터 서울 평양 간 축구경기 재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평양시향의 연주교류 등 스포츠·문화 교류협력 사업을 꾸준히 제안해왔습니다. 또한 공동역사연구와 도시계획 협력, 개성공단을 모델로 한 경제협력 사업 등도 제안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역할과 제안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저는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움과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과 평양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교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신뢰의 토대가 굳건해지면,  
평화와 통일은 자연스럽게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지구촌 평화를 향한 세계 기자들의 한결같은 염원과  
대한민국의 오래된 꿈인 ‘한반도 통일’의 결실을 이루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을 환영하기라도 하듯 지금 서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남산과 한양도성, 한강 길과 같은 굽이굽이 아름다운 산책길부터  
쇼핑의 거리 명동, 디자인의 새로운 세계 중심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까지  
아름답고 매력적인 2천년 전통의 역사도시 서울을 두루 체험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